

-(으)ㄹ 지경이다

~할 지경이다, 거의 ~할 정도이다

한계까지 몰린 상태를 나타냅니다. 지경은 '경계'라는 뜻으로, 경계선까지 내몰렸다는 의미이며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ㄹ 지경이다	쓰러지다 → 쓰러질 지경이에요
받침 있음	-을 지경이다	죽다 → 죽을 지경이에요
ㄹ 받침	아무것도 붙이지 않음	만들다 → 만들 지경이에요
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구	-(으)ㄹ 지경으로	쓰러질 지경으로 피곤했다
띄어쓰기	지경은 명사	쓰러질 지경이다
어조	극단적이고 달갑지 않음	즐거운 극한 상태에는 부적절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 방법은 기본 규칙을 따르며 ㄹ 어간은 짧은 형태가 됩니다: 만들다 는 만들 지경이다.가 됩니다. 지경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나타내는 상태는 극단적이고 달갑지 않은것입니다. 피로, 배고픔, 답답함, 무너짐 등입니다. 즐거운 극한 상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: 기뻐서 웃을 지경이에요는 어색합니다.

의도적으로 과장하는 표현입니다.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는 실제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, 생생하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.

변형인 -(으)ㄹ 지경으로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됩니다: 쓰러질 지경으로 피곤했다.

■ 예문

- 1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.
- 2 일이 밀려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.
- 3 하도 시끄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어요.
- 4 빛이 늘어 집을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.
- 5 주문이 밀려서 밤새 만들 지경이에요.
- 6 숨을 쉬기 힘들 지경으로 매웠습니다.

■ 비교

-(으)ㄹ 정도로
정도로는 좋은 나쁜든 모든 정도를 나타내지만, 지경이라는 괴로운 상태에만 씁니다.
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어요. (배가 아플 만큼 웃었다) / 쓰러질 지경이에요. (곧 쓰러질 것 같다)

-(으)ㄹ 뻔하다
뻔하다는 이미 지나간 아슬아슬한 일을 전하고, 지경이라는 지금 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.
쓰러질 뻔했어요. (거의 쓰러질 뻔했다) / 쓰러질 지경이에요. (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)

-(으)ㄴ 나머지
나머지는 극단적인 상태가 어떤 결과를 낳았음을 말하고, 지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태 그 자체를 핵심으로 말합니다.
놀란 나머지 말도 못 했다. (너무 놀라서) / 미칠 지경이었다. (미칠 것 같았다)

■ 주의

- ✗ 너무 기뻐서 웃을 지경이에요.
-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.
지경이라는 괴로운 상태를 나타냅니다. 즐거운 극한 상태라면 정도가 알맞습니다.
- ✗ 밤새 만들을 지경이에요.
- 밤새 만들 지경이에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뿐이에요와 마찬가지로입니다.
- ✗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경이에요.
-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.
지경은 명사이므로 관형형 뒤에 띄어 씁니다.